



중원엔지니어링(주), 2017년 대만 워크샵 실시

중원엔지니어링(주)(대표 박정필·민영관)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대만에서 2017년 워크샵을 실시했다.

박정필 대표이사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중원엔지니어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연매출 1,3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원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전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이루어낸 성과일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정필 대표는 또 “중원엔지니어링이 설립된 1997년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내외 경제여건이 갖 설립한 회사를 세찬 바람에 맞서게 하였고 이후에도 존립이 쉽지 않은 업계 환경 속에서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정필 대표는 “중원엔지니어링이 일 반건물 및 플랜트의 공조, 위생 및 소방설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병원, 태양광 발전시설의 프로세스 배관 및 CCSS(Central Chemical Supply

중원엔지니어링(주)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대만에서 2017년 워크샵을 실시했다

System) 분야의 전문업체로서 최고의 품질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들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ERP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인력풀 파이를 키우고 능력 있는 미발굴 인재를 찾아내 경영효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 중원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공품질 완성을 위해 ISO 9001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 및 KOSHA 18001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중원엔지니어링은 국내 현장은 물론 남극의 혹독한 환경, 열사의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해외 곳곳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수 기술자들을 다수 보유한 역량있는 회사로 정평이 나있으며 구성원들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건설기능 경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해마다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Hydraulic Pressure Testing 장치, 고소작업용 파이프 Lifter, Riveting Gun 등 다수의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 등 기술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안전부문에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